

해명자료

문의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식 과장(☎750-1610)
기획재정담당관실 마재욱 사무관(☎750-1624) jwma@kcc.go.kr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 사실과 달라 **- 16개 정책 국민 만족도 평균 5.02는 ‘보통’ 수준에 해당 -**

‘11.12.29.(목) 헤럴드경제 1면에 보도된 “방통위 4년 낙제점” 제하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통위가 지난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평균 5.3점을 부여하여 ‘낙제’ 점수를 매겼다.

□ 방통위 입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을 표본 대상으로 하여 지난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을 제시하고 해당 정책의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조사기간 : '11.11.30 ~ 12.2.(3일간)

- 10점 척도를 사용,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따라서 평균점수 5.02점에 대해 ‘낙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며,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국민들이 성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 ‘스마트폰 대중화’는 6.1점,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4.2점이었습니다.

※ 5.0을 중심으로 + 1.1, - 0.8의 편차내에서 점수가 나옴

○ 아울러 16개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 5.0 미만이 5개(최저 4.2 이상), **5.0 이상이 11개로** 나타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붙임 : 설문조사 내용 일부>

2012년 방송통신정책 설문조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2008년 3월 출범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전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정책 및 규제 행정 기관으로써 국민의 방송통신 환경 개선과 국가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 융합,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IPTV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산업 신산업 육성, 방송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요금제 개선,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보호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공통

1. 다음은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방송통신 정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응답방법(예시)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0점	5점	10점

- 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점)
- ② 2012년 12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점)
- ③ 협찬·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점)
- ④ 방송규제 완화 및 종합편성 PP(채널) 신규 승인 (점)
- ⑤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PP(채널) 승인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점)